

정동의 '킹스 라이브러리'

이태진

서울대 교수 · 한국사

독서는 국력이요 국운이다. 한 나라의 힘과 운명은 그 국민들의 독서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다. 주한 미국공사 알렌이 1897년 9월 30일자로 본국 정부에 보낸 서울의 미국공사관 약도가 최근 미국에서 발견되었다. 정동의 미국공사관을 가운데로 하여 주위를 자세하게 그린 지도이다. 북편에 대한제국 군사훈련장, 거기서 시계방향으로 한국세관(구 구세군 건물), 영국 공사관 및 영사관, 신궁(新宮) 즉 경운궁(慶運宮:현 덕수궁)의 서쪽 출입문 일대 등이 표시되어 있다. 여섯시 방향(남쪽)에는 퍼블릭 파크, 그 다음에 킹스 라이브러리 등이 표시되어 있다(약도에 적힌 대로 영어 명칭을 그대로 옮겨봤다). 이 약도는 1897년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경운궁을 새로 지어 본궁으로 삼은 당시의 주위 경관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역사책들은 아직도 고종황제를 무능한 군주로 서술하고 있다. 의도적이 아닌 경우도 대부분 그를 그런 군주로 전제하여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나는 수년전부터 이 시대에 일어난 일 본과의 특별한 사건들에 관련된 사료들을 뒤지면서 이런 인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기뻐했을 때마다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전혀 잘못된 일이다. 일본이 '해아밀사사건'을 구실로 1907년 7월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뒤, 8월 초에 '신제(新帝)의 연호를 융희(隆熙)로 정하면서 경운궁의 이름을 덕수(德壽)로 바꾸어 '구제(舊帝)의 거처로 삼도록 했다. 덕수란 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정황에 비추면 '고종 너는 이제 덕을 베풀어 목숨이나 보전하라'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니 분노할 일이다. 당장에 본명으로 고쳐야 할 일제 강점의 잔재다.

고종은 친정에 나선 후 '구본신참(舊本新參)' '동도서기(東道西器)'의 근대화를 서둘렀다. 그러나 청나라와 일본의 침투로 험난한 장애에 부딪힌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에는 왕을 뒷전으로 밀어내더니, 그것도 모자라 왕의 충실한 후원자이던 왕후를 시해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참변을 당한 후 왕은 '아관파천'으로 정국변환의 전기를 만들어 친일내각을 모두 사퇴시킨 다음 경운궁을 새로 지어 본궁으로 삼고 이듬해 대한제국을 출범시켰다. 이후 황제는 자주국가 기틀을 명실상부하게 확립하고자 산업진흥, 군대양성 등 부국강병의 정책을 추진한다.

그는 이에 앞서 이런 일을 하자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소학교 제도 외에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을 세우도록 부탁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자금도 내렸다. 알렌의 약도에서 확인되는 '킹스 라이브러리'는 본래의 황제 자신의 정치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세운 것이겠으나 황제는 가까이 있는 배재학당, 이화학당 학생들도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독립신문에 그렇게 보도되어 있다. 당시 황제가 고용한 험버트 등 교육고문들은 프로페서란 칭호를 쓰고 있었으니, 황제의 계획대로라면 두 학당은 머지않아 '킹스 칼리지'가 되었을 것이다.

1901년 11월 '킹스 라이브러리'는 원인모를 화재로 잿더미가 된다. 황제는 곧 이를 복구시키려고 했겠지만 그 뒤 소식은 전하는 것이 없다. 복구작업이 시작되었어도 1903년도에는 이미 일본의 침략 마수가 다시 광란하기 시작했으니 재개관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반도 장악의 꿈은 사라진다고 판단하여, 서둘러 러일전쟁을 일으켜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탈취하기 시작했다.

도서관 소실이 이 불운을 이미 예고하는 것이었을까? 그보다는 대한제국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서관을 국력만회의 필수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출판문화와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낙제점이면서 세계화만 부르짖고 있는 우리가 과연 정당하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다.

표지 인터뷰 2 **한국현대사를 수놓은 언론인들의 발자취**
《인물한국언론사》 펴낸 정진석 교수

초점 4 **'밀리언셀러'가 사라진다**
현저히 떨어진 판매부수...소량다품종 체제 전환기대

출판계 소식 5 **초대형 유통회사 '한국출판유통' 출범 외**

특집/만화출판의 미래 6 **교양만화에도 영역확대 바람**

7 **진지한 시각 돋보이는 만화연구서**

8 **"만화출판이 정착돼야 만화산업이 산다"**

만화 전문 출판사 '글논그림'

특별 좌담 10 **불황시대, 우리의 책흐름을 진단한다**
장기불황 요인 등 현안의 분석과 전망
고진숙/김영철/박동수/이운용/한기호

출판시평 16 **'일본열기'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조양욱
옥석혼재의 관련서...전문기획서에 눈독일 때

신간읽기 17 **원숭이를 통해 본 인간의 감춰진 속성** —박시룡
프랑스 드 발 《정치하는 원숭이》

출판특제 18 **세계를 향해 기지개 켜는 한국출판**
'에림당서사' '열음인터내셔널' 등 해외로 진출

19 **내면의 자유 잠깨우는 '인도' 관련서**

20 **방대한 분량의 괴테전집 선보여**

연재 21 **우리의 정보미래는 장미빛인가**

책 뒤에 선 사람들 22 **'아트라인' 제판실 이재원씨의 15년 외길**

서평 24 **장 마리 게노 《민주주의의 종말》** —박기덕
김수행 외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김광명

25 **그리스펜 《우리 속에 숨어있는 힘》** —김홍숙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26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황상익
존 A.워커 《디자인의 역사》 —조용준

종합서평 27 **불모의 일상에서 상처를 건디는 방식** —정호웅
구호서 · 김한수 · 이순원의 소설을 읽고

이 책 그 사람 28 **《우리가...전통에인 백사람》** 펴낸 이규원씨
《신경성 클리닉》 펴낸 이시형 박사

29 **《기구한 인연》** 펴낸 김원씨

《목마들의 언덕》 펴낸 채영주씨

30 **러시아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검은손' 외**

세계의 출판 32 **어린이책/34 신간안내/44 세로나온 책**

표지 사진/김지옥